

제인 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

제인 구달, 마크 베코프 지음, 최재천, 이상임 옮김, 바다출판사, 2003



제인 구달은 40여 년에 이르는 평생을 침팬지와 함께 살아온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학자이고, 「인간의 그늘에서: 제인 구달의 침팬지 이야기」(최재천 외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1) 등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과학 저술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번에 「희망의 이유」(박순영 옮김, 궁리, 2003)와 함께 소개되어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제인 구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생명 사랑 십계명>은 제인 구달 박사가 역시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인 마크 베코프와 함께 그 동안 몸으로 체험한 동물과의 삶을 바탕으로 이끌어낸 생명 사랑의 열 가지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열 가지 계명은 물론이고,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동물과 자연 학대의 부끄러운 사례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 우리가 그 동안 너무 무지(無知)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이 책은 구달 박사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츠앤드슈츠'(뿌리와 싹) 운동의 행동강령이지만,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둘 가치가 있다. 이 책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박물관 관장인 팀 플래너리와 야생 동물 화가인 피터 사우텐이 몇 년 전에 펴냈던 「자연의 빈자리」(이한음 옮김, 지호, 2003)와 함께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5백년 동안 우리의 잘못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글_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과연 우리는 왜 자연과 야생 동물을 그렇게 애써 사랑해야 하는가? 단순히 소중한 푸른 행성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감상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다섯 번째 계율에서 지적했듯이 '인류의 번성으로 초래했던 엄청난 생물의 멸종'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 과연 우리 인간은 독일의 대문호 니체가 말했듯이 '지구의 피부병'에 불과한 존재일까?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생물을 사랑해야 하는 데는 무엇인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명사랑 십계명

- 1) 우리가 동물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뻐하자
- 2) 모든 생명을 존중하자
- 3) 마음을 열고 겸손히 동물들에게 배우자
- 4) 아이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가르치자
- 5) 현명한 생명 지킴이가 되자
- 6) 자연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자
- 7) 자연을 해치지 말고 자연으로부터 배우자
- 8) 우리 믿음에 자신을 갖자
- 9) 동물과 자연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돕자
- 10)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희망을 갖고 살자



인간을 위한 자연 사랑

물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야생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자연과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감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연에서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화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구는 적어도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는 범위에서는 유일하게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구가 적당한 온도로 불타고 있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풍부한 물과 대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지구에 기적처럼 등장한 생물은 우리가 '영양분'이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에 담겨진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고도로 복잡한 생물계로 진화하였다. 문제는 어떤 생물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

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화학적인 의미에서 거대한 공생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녹색식물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화학적 원료는 모두 다른 생물이 쓰고 버린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 녹색식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축적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야만 한다. 물론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 그 대가로 다른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필요한 화학물질을 스스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과 공존해야 한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다른 생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공생의 고리 때문이다.

그런 주장이 극도로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사라져버린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던 시절에 자연과 다른 생물을 훼손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과학적 역량을 갖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애써 자연과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이제는 온갖 동물들을 열악한 동물원의 울타리에 가둬두고 맹목적인 자연 사랑을 외칠 것이 아니라, 최재천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영장류연구센터' 처럼 진정으로 생명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애써 얻은 과학 지식 덕분에 그런 여유를 갖추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이다. 📖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살아있는 것들의 아름다움』, 나탈리 앤지어 지음, 햇살과 나무꾼 옮김, 해나무, 2003년
2.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초의 과학자』, 마이클 화이트 지음, 안인희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3년
3. 『빛과 색의 신비』, 구와지마 미키, 가와구치 유키토 지음, 이규원 옮김, 한울림, 2003년
4. 『엘니뇨의 비밀』, 매들린 내시 지음, 이면우, 송철복 옮김, 중심, 2003년
5. 『우주로부터의 귀환』,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전현희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2년